

우제길 (한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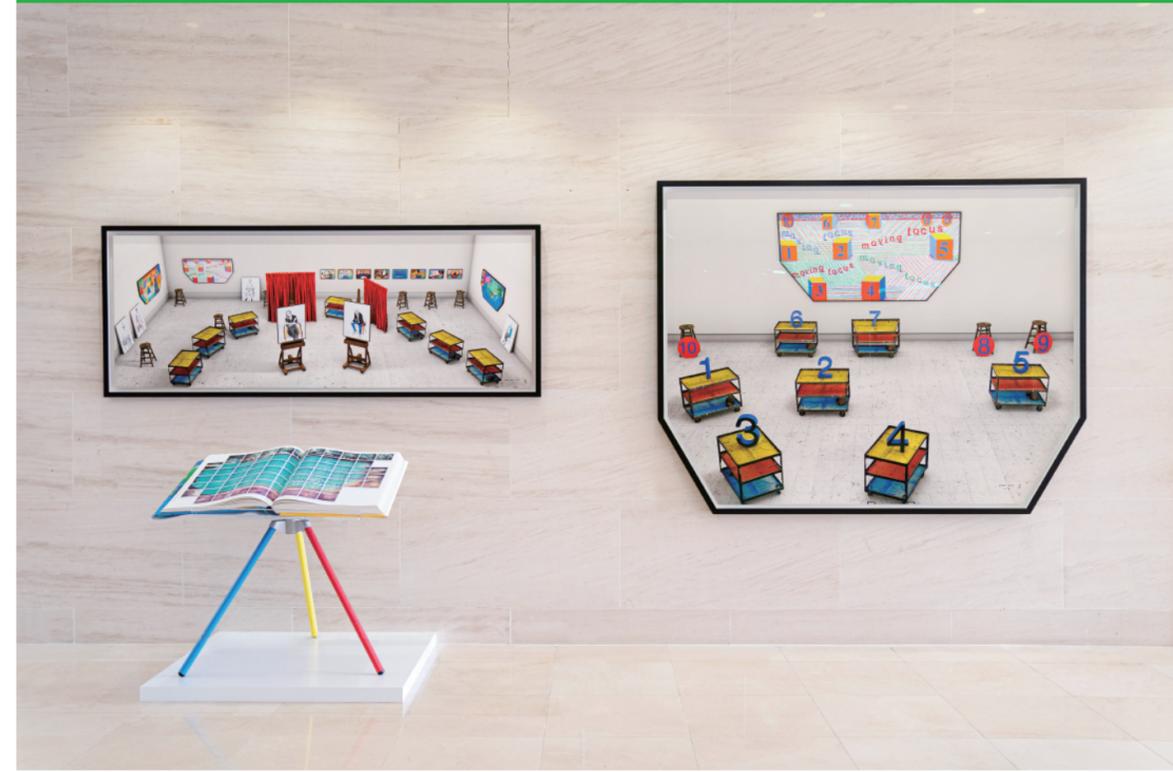


Light 2009-A, 2009, Acrylic on Canvas, 454.6 x 181cm

06/99 우제길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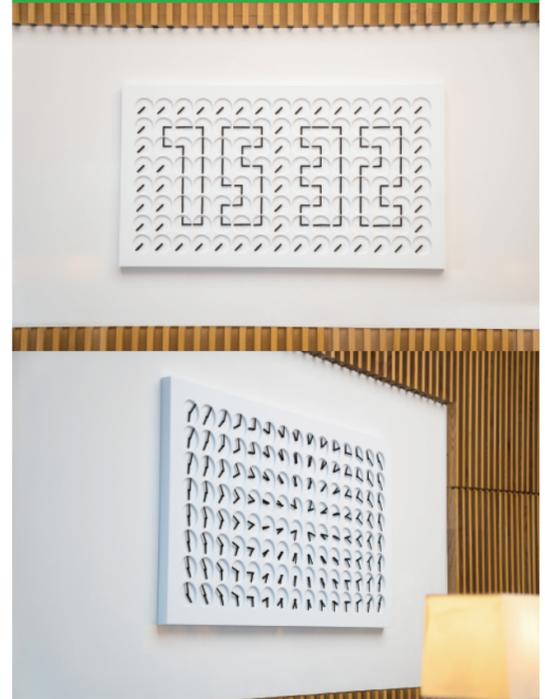
Seven Trolley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83.2x228cm, Edition 19/25

Focus Moving,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170.2x217.8cm, Edition 18/25

07 데이비드 호크니

휴먼스 신스 1982 (스웨덴, 독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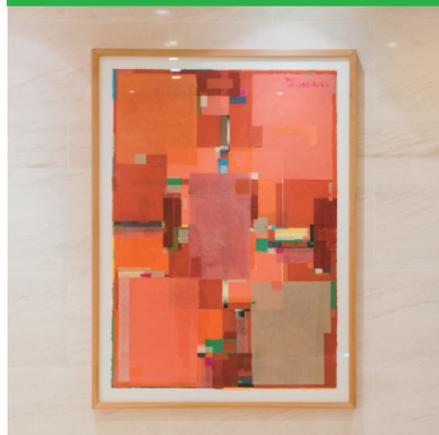
A Million Times 120, 2020, White Coiran and Electronic Components,  
208x117x6cm, Edition 14/82

A Million Times 120은 스웨덴의 HDK Göteborg에서 독일 출신 Bastian Bischoff와 스웨덴 출신 Per Emanuelsson 1982년 동갑내기 두 사람이 만나 2009년 설립한 휴먼스 신스 1982의 대표 작품이다. 휴먼스 신스 1982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및 기술자를 포함한 다국적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시계,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물체를 통한 시각적인 유희 및 작업을 추구한다. A Million Times 120은 가장 평범한 아날로그와 가장 최신의 디지털이 융합된 모습으로 120개의 시계로 이루어져 각 1분마다 로테이션하며 20개의 패턴을 구현한다. 그들의 작품은 Saatchi Gallery, Dillion+Lee, Art Miami, Cooper Hewitt, Verbeke Foundation, Phillips de Pury & Company 등 권위 있는 여러 갤러리, 박람회, 기관에서 소장 및 전시하고 있다.

소재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디지털로 이미지를 결합, 재배치하여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킨 것으로, 독특한 원근법과 구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포토그래픽 드로잉 작품은 사진의 고정된 관점이 아닌 다중 관점을 사용하여 회화적 시각을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1960년대 팝아트 흐름에 주요한 기여를 한 예술가로 공예, 판화, 무대 디자인, 사진,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아이패드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창의적 잠재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이후 새로운 기법으로 3차원 현실 세계와 2차원 성의 회화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작품 속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작가의 풍경화, 초상화 작품들 그리고 작업실에서 쓰이는 트롤리, 스툴, 커튼 등 다양한

9



Light 2010-C, 2010, Collage on Panel, 200x138cm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제길 작가는 40년 넘게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업해온 현대 추상미술의 대가이다. 유년 시절 시냇가 언덕 위에서 형들이 쫓던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빛에 매료된 그는 어둠을 꿰뚫는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아닌 따뜻한 빛을 작품에 담아낸다. Light 2009-A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그의 이력답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인류의 꿈과 희망을 안은 환한 빛이 우주로 향해 끝없이 높게 피어오르는 울동감을 표현했다. 작가가 한지의 순박한 색감과 질감에 매료되어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한 Light 2010-C는 색 한지를 판넬 위에 얹어, 넓은 면들과 다른 면들의 화면 구성을 이뤄 한지가 갖는 따스함과 다양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표현했다.

최규철 (한국)

10



호남 조각계의 거장 김대길 작가가 하늘을 날아가는 꼬리 달린 풍선을 통해 축제와 소풍의 즐거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호텔 외에도 전남대, 광주은행 본점,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지역 주요 시설과 삼성 태평로 사옥 등에서 그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도시의 창, 2010, Stainless, Steel, Urethane(Coating), 150x130x310cm

김대길 (한국)

11



광주지역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대길 작가는 기하학 도형인 점, 선, 면과 전통적인 창을 도입해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현대적 단순미와 조형미를 통해 재료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거울에 투영되는 듯한 슈퍼미러(SuperMirror)의 효과를 살려 도시 풍경을 탐색하고 붉은색의 이미지로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축제, 2009, Stainless, Steel, 250x250x800cm

08 휴먼스 신스 1982 | 10 최규철 | 11 김대길

ART  
ON  
VOY  
AGE

H Holiday Inn  
AN IHG HOTEL  
GWANGJU

# Frame Your Art 이벤트

기간  
2023.07.01 ~ 2023.11.30

## 참여 방법



호텔 내 전시된 작품 사진  
또는 작품과 함께 Selfie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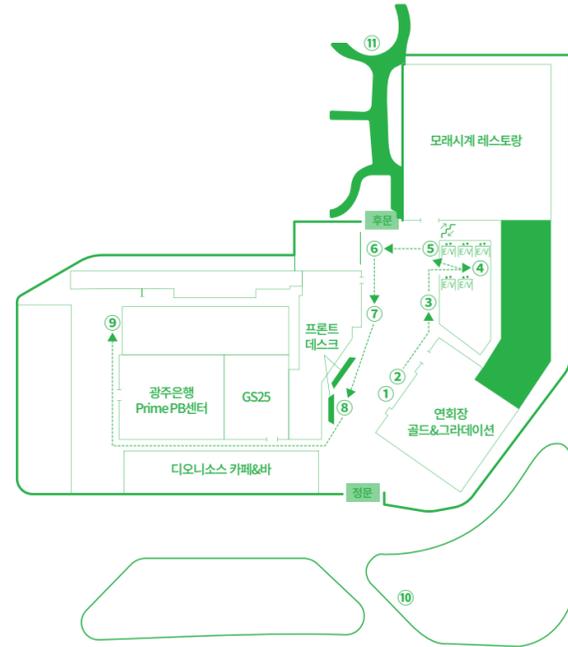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인스타그램에 게시

#홀리데이인광주호텔 #광주여행 #아트호랑스



프론트 데스크에 게시글 제시 후  
클림트 키스 귀베 브뤼 미니 와인(200ml, 10,300원 상당)  
또는 웰컴 드링크(최대 13,200원 상당) 쿠폰 수령

\*1인 1회 참여 가능. 랜덤 제공  
\*웰컴 드링크 메뉴: 커피, 차, 소프트 드링크, 주스(Chilled), 생맥주, 하우스 와인



- ① 전광영 집합10-OC034RED,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12x402cm
- ② 필립 콜버트 Soup Can, 2022, Stainless Steel, 220cm
- ③ 전광영 집합(Blue),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88x160cm  
집합(Gold),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90x158cm
- ④ 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 2020, Oil Painting on Canvas, 160x160cm
- ⑤ 윤병락 녹색 위의 붉은 사과, 2022, Oil on Korean Paper, 227.8x100.7cm
- ⑥ 우제길 Light 2010-C, 2010, Collage on Panel, 200x138cm
- ⑦ 데이비드 호크니 Seven Trolley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83.2x228cm, Edition 19/25  
Focus Moving,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170.2x217.8cm, Edition 18/25
- ⑧ 휴먼스 신스 1982 A Million Times 120, 2020, White Coiran and Electronic Components, 208x117x6cm, Ed. 14/82
- ⑨ 우제길 Light 2009-A, 2009, Acrylic on Canvas, 454.6x181cm
- ⑩ 김대길 축재, 2009, Stainless Steel, 250x250x800m
- ⑪ 최규철 도시의 창, 2010, Stainless Steel, Urethane(Coating), 150x130x310cm

작품번호

## 전광영 (한국)



집합10-OC034RED,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12x402cm

활발한 국제적인 예술활동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광영 작가는 '집합'이라는 연작을 만들어 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작가는 평면의 나무 프레임 안에 한지로 싼 수천 개의 삼각형 스티로폼을 한지로 꼬아 만든 끈으로 묶어 집결시킴으로써 회화적이면서도 부조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작가의 최근 작품은 각기 다른 크기와 다른 명암의 삼각형 셀들이 집합되면서 사각 평면 안에서의 불규칙적 움직임을 이룸으로써 규칙적인 틀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다. 전광영 작품의 기본적 개념은 한국의 문화적 정서뿐만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지 종이봉투에 얽힌 그의 향수 어린 기억이 오늘날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다.

1

01/03 전광영

## 필립 콜버트 (영국)



Soup Can, 2022, Stainless Steel, 2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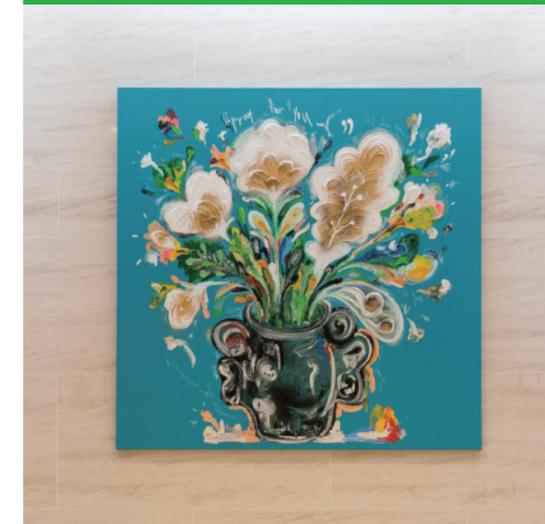
전 보그의 편집장이자 패션 거장 안드레 리온 탈리로부터 앤디워홀의 대자라는 찬사를 받은 필립 콜버트는, 팝 아트의 거장인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을 표상하는 동시대 팝 아트의 대표 작가이다.

영국 출신의 필립 콜버트는 런던에서 활동하며 사치 갤러리, 홍콩 화이트스톤 갤러리, 유니트 런던 등 미술 시장의 핵심 갤러리와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주요 무대로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이어 왔다. 또한 삼성, 애플 나옴, 몽블랑 등의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머천다이즈 제작과 디지털 스크린까지 섭렵하고 있다.

철학 전공을 바탕으로 대중 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만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자신의 예술적 자아인 랍스터를 주인공으로, 회화, 조각, 디지털 스크린, 퍼포먼스, 의상 디자인과 가구까지 폭넓은 장르를 통해 오늘의 대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계의 전폭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2

## 강준영 (한국)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 2020, Oil Painting on Canvas, 160x160cm

강준영은 한국 미술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라이징 아티스트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과 추억, 그리고 감정을 회화, 도자,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사유적 감정으로서의 소재가 아닌, 확장된 영역으로서 의미를 재생산하고 재해석되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사랑과 평화, 희망, 가정, 집 등의 서정적인 감성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 시리즈에서는 손과 붓을 이용해 두렵게 쌓아올린 유화 물감 사이로 베어 나오는 작가의 사랑에 관한 단상과 관람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4

02 필립 콜버트 | 04 강준영

## 윤병락 (한국)



녹색 위의 붉은 사과, 2022, Oil on Korean Paper, 227.8x100.7cm

'슬드아웃 작가'로 불리는 윤병락 작가의 나무 껍질에서 쏟아져 내릴 듯한 사과들은 자작나무 합판을 튀어나온 모양대로 잘라 한지를 캔버스 천처럼 얹혀 붙인 병형 캔버스에서 시작된다. 밀칠 위에 유화 물감을 올려 물감의 무게감과 질감, 그리고 한지에 스민 부드러운 투명함이 조화를 이룬다. 맑고 깨끗한 색채와 독창적인 표면 처리가 돋보이며, 작품 속 사과들은 길거리에 놓인 사과 상자를 보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으로 표현되어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전하고 있다.

작품의 사과들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기쁨의 상징으로 작가에게 고향의 향수와 풍성한 결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빨간색과 녹색 사과가 한 상자 안에 어우러진 모습은 사과를 의인화시켜 서로 화합하며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작가와 그의 작품은 "슬드아웃 작가", "없어서 못파는 사과"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5

3



집합(Blue),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88x160cm  
집합(Gold),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90x158cm